

제21과 욥기-고난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의 주권

부모님을 위한 안내 (가정활동을 위해서는 다이내믹 영상을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.)

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일까요?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. 성경 시대의 의인이었던 욥은 하루아침에 납득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. 욥의 친구들은 고난의 원인을 욥의 죄 때문이라고 했지만, 욥은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.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없어 힘들어하면서도,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. 이때, 하나님은 욥에게 특별한 질문을 하셨습니다. “너는 내가 땅을 만들 때 어디에 있었느냐? 누가 호수와 바다의 물을 마치 문을 닫는 것처럼 막아서 해변에 넘치지 않게 하였느냐? 누가 번개와 천둥의 길을 만들었느냐? 누가 비를 내리게 하느냐?”

하나님은 욥에게 질문하시며,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. 욥은 이 세상의 모든 것, 심지어 자신이 겪은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이처럼 고난을 통해 주권자 하나님을 알게 된 욥은 정금과 같이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였습니다.

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, 정금과 같은 단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.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고난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입니다.

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알게 해야 합니다. 그리고 자녀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, 주권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.

오늘의 활동 - 성장을 위한 어려움!

준비물: 종이, 가위, 연필

활동하기

- ① 종이를 여러 번 접고 오려 여러 장의 카드를 만듭니다.
- ② 카드에 자신이 겪었던 어려운 일들을 적는다.
- ③ 카드를 모두 펼쳐놓는다.
- ④ 진행자가 다음과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면 자신에게 해당하는 카드를 골라 그 카드를 뽑은 이유를 설명한다.



- 가장 마음이 힘들었던 일
- 몸이 고되었던 일
-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쉬운 일
- 나에게 꼭 필요했던 일

질문하고 서로 이야기하기

1. 욥은 고난을 통해 어떻게 변했니? (대답을 들은 후) 변화된 욥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나누어보자.
2. 만약 나에게 욥과 같은 고난이 찾아온다면 어떤 것 같는지 이야기해보자.
3. 자신이 겪었던 고난을 생각해보자. (생각할 시간을 준 후) 그때 기분은 어땠는지, 또 앞으로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해보자.

* 믿음 나누기 | 부모가 먼저 고난을 통해 믿음이 성장했던 경험을 들려주고, 자녀도 그러한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를 나누게 한다.

찬양과 감사하며 기도하기

♪ 함께 부를 찬송 “하나님 함께하시니”

QR 코드 ▶

